



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: 김중배(강릉국립병원 110-731 서울시 중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5층 전화: 723-5300 / 팩스: 723-5355)
찬반안하호텔 PSD, 나유누리유니텔: 참여연대 / 전자우편: pspd@soback.kornet.nm.kr / 인터넷 홈페이지: <http://www.koreanet.org/~pspd/>

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
발 신 참여연대 (담당: 조현희 723-5302)
제 목 유서대필사건의 재수사와 재심을 요구한다
날 짜 1998. 2. 11. (총 2 쪽)

성명서

유서대필사건의 재수사와 재심을 요구한다

1998년 2월 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

검찰이 180억원대에 달하는 국유지 사취를 기도하던 대규모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이들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준 범죄행위가 드러났다.

김형영씨는 지난 1991년 5월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이를 배후에서 교사한 혐의로 강기훈씨가 유죄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다. 이른바 '유서대필사건'으로 불리워지는 이 사건에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이던 김형영씨는 단지 주관적인 심증만으로 유서의 필적이 강씨의 글씨체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내림으로써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, 대법원도 이 사건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신빙성 있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였다. 그러나 김형영씨는 이후 92년 9월 9일 국과수 재직당시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마침내 오늘 토지사기단에 공모한 혐의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다.

김씨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지금, 김씨에 대한 '강기훈씨유서대필사건 무죄대책위원회'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.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, 뇌물수수에 이

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형영씨의 감정능력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다. 게다가 윤리적인 흠결까지 드러났으므로 유서대필사건에 김형영씨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.

한편 강기훈씨유서대필사건의 판결이 김형영씨의 필적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김형영씨의 감정결과과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, 이 사건의 재심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.

강기훈유서대필사건의 진실규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능력 판정을 넘어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 판결을 내린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도덕성을 규명하는 작업이다. 법원과 검찰은 김형영씨와 관련된 고발사건과 강기훈씨사건 재심을 통해 얻게 될 자기반성의 기회를 또다시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.

1998년 2월 11일

참여연대 공동대표

김중배 김창국 박상증